

중앙아시아에서 드리는 5월 소식

혈압 127-89, 체온, 맥박, 모두 현재 "정상"입니다. "정상"이라는 말처럼 기적같은 일이 더 없을 것입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중환자실에 누워계신 장인 어른을 곁에서, 지난 밤새 체온 39도와 혈압 200-170이 넘어서다가, 다시 혈압이 아래로 내려가 60-30까지 오르내리던 시간은 정말 길고 긴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몇고비를 넘기시고 다시 정상 상태를 찾으신 모습을 보면서 그분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이겨내시어 현재 "정상"의 상태를 보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의 정상적인 일들이 얼마나 가치있고 귀중한 일들인지를 말입니다. 이곳 중앙아시아를 위해 간구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5월의 소식을 드립니다.

1. 신약 주석 번역 작업 번역 작업의 열매로 한권 한권의 책으로 발행되는 그 모든 과정에는 정말 그분의 은혜가 아니고는 가능하지 않은 작업인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은 기초 번역이 된 키어 자료를 가지고 2년 전 겨울에 시작하여 겨울에는 집중하여 매일 눈이 아프도록 3개월동안 감수 작업을 하면서, 3분의 1을 마쳤었습니다. 그 후에 다시 번역자가 한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어, 다른 사역자를 연결하여 시작하느라고 1년여 기간을 기다렸습니다. 지난 가을에 다시 시작된 감수작업이 지난 겨울에 마쳤고, 다시 도서 편집 프로그램으로 편집작업을 거쳐, 수정작업과 최종 읽기 감수 작업 후에 조판 부호들을 맞추어 보고 나서 지난 3월 중순에 인쇄소로 넘겨졌습니다. 인쇄소에서 최종 판을 받아 다시 마지막 교정 후에 인쇄 사인을 한 것이 4월 중순이었습니다. 이제 인쇄소에서 판을 뜨고, 칼라 선정과 표지작업을 마치고 이제 인쇄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마 다음 주 정도면 1000권의 책이 출간될 것입니다. 이제 13권의 신약주석 시리즈 가운데 제일 두꺼운 책들 중 7권이 책으로 출간되어서, 나머지 6권의 책들은 조금 얇아서 조금더 진행 속도가 빠르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번역팀의 책임자인 호주 사역자 로빈 교수는 건강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도 지속적으로 이 사역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년 뒤에 은퇴하면 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라서 그때까지 13권 시리즈 전체가 완성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재정과 팀의 작업 진행 속도로 보면 좀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늦은 열매를 보시면서도 함께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입니다.



2. 한국어 교실(드림 아카데미) 한국어 교실은 지난 지난 9월부터 3개의 기초반, 2개의 중급반, 1개의 고급반, 총 6개반 120명으로 운영 중인 학생들 가운데 80명 정도가 지난 4월 한국어능력시험(토픽)을 치르었습니다. 처음에 기억이은부터 시작한 학생들이 선생님들의 말을 알아듣고, 어렵게 문장을 만들어 대답하는 것을 보면 정말 대견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몇 문장 채 말을 이어가지 못하면서도, 어떤 친구들은 노랫말을 외워서 따라하기도 하곤 합니다. 한국과 이곳 중앙아시아 키르기즈와의 관계속에서 다양한 관계로 한국을 오가게 될 이들의 꿈이 한시간 한시간 수업을 통해, 때로는 이벤트를 통해 만나면서 키워져 갑니다.

이번 여름에도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한국어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처음 참석하게 되는 학생들에게는 더욱 큰 기대를 가지고 일정을 확인하기도 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 하기도 합니다. 이들 가운데 소수이지만 몇 명은 한국으로 연결되어 대학에 진학하여 공부를 하기도 하고, 꽤 여러명의 친구들은 취업으로 한국에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곳 대학에 개설된 한국어학과로 들어가기도 하고, 이곳 사역자들이나 교민들의 사업에 연결되기도 합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언어를 통해 관계가 형성되어 가는 것을 통해 조금씩 좋은 씨앗이 뿌려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9월 학기에 새로이 들어올 학생들, 그리고 새롭게 구성될 교사진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노숙인들을 위한 사역

11월부터 3월까지 겨울기간동안 운영되고 있는 노숙자들이 기거하는 희망의 집에는 따뜻해진 날씨에 대부분 숙소를 떠나지만,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기거할 곳이 필요한 이들을 계속 돌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구청의 공식적인 지원을 종료되었지만, 여전히 구청의 소속인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어서, 최소한의 식비와 비용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아픈 이들을 위한 치료와 치과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기본적인 의약품을 공급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알아보았습니다. 구청에서 무료 진료권을 제공해 주기로 했지만, 막상 병원에 가면 홀대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아는



이들은 병원에 가자고 해도 가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진료가 가능한 의사들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시적으로 한인 사역자 가운데 현지 의사 면허를 받은 사역자가 있어서, 1차 방문 진료를 했습니다. 지속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현지 방문 의사를 연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치과 진료는 잘 준비된 치기공사들과 함께 사역하는 분과 연결이 되어, 저렴한 비용으로 빠진 이, 틀니를 제공해 주기로 약속이 되었습니다. 3-4주 전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하여 기본 진료와 함께, 본을 뜨고, 맞추어 보고, 다음 주에 다시 교정하는 작업을 통해 비취객 희망의 집의 15명, 토크목의 10명에게 혜택을 줄 수 있었습니다. 어렵게 지내던 이들에게 또 하나의 기쁨을 주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사역으로 함께 하시는 사역자분들과의 좋은 협력 관계와 지역 사회에서의 작지만 소중한 역할이 구청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효율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가족 스케치

이곳 현지에서의 현지 소속 기관인 Good Partner의 대표로 계신 김옥열 님이 저의 장인 어른이십니다. 82세이시지만 지금까지 키르기즈에서 현지기관대표로 사역을 해 오셨는데 몇 주전에 뇌졸중으로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그렇게 건강하시게 다니시고 활발하게 사역을 하셨는데, 갑자기 쓰러지셔서 장모님과 아내, 그리고 가족들 모두가 많은 분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 돌봐 드리고 있습니다. 속히 회복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정혜브론, 김엘레나 드림